

유일한 공식통계기관 위치 확고히 다져

1997년은 한보의 부도사태로부터 IMF의 구제금융 국내반입에 이르기까지 국가경제적으로는 매우 다사다난했던 한해로 기록될 것임에 틀림없으며, 정보통신산업도 통신사업자의 양적 팽창, 별정통신사업이라는 신규서비스의 등장 그리고 통신서비스사업권 반납 등 이에 못지 않은 변화를 기록했었다.

이러한 대내외적 산업경제 환경속에서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예민하고도 중요한 조사통계사업의 '97년 한해는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련기관과 업계에 커다란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예외주시할 사업이었다고 생각된다.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조사통계자료들은 기업의 경영전략과 신규사업에의 진출 그리고 국가 정책수립에 필수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경제통계 기초자료로서 정보통신부가 경제부처로 자리매김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산업경제 및 사회문화에 관한 중요한 지표이다. '97년은 우리 협회가 통계청으로부터 정보통신산업분야에 대한 통계작성지정 기관으로 승인된지 두해, 그리고 정보통신산업통계 업무가 정보통신부의 정책실 총괄과에서 주관한지 두해되는 해로서 올해 우리 협회는 조사통계사업의 중요한 몇가지를 일구어 냈다. 첫째는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모든 유관단체와 연구기관 중에서 공식적인 통계를 생성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인정되어, 모든 연구 보고서나 산업전망 및 정책자료에 우리 협회의 일관되고 획일적인 통계자료가 활용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96년까지만 해도 기기통계는 ETRI, 통신서비스는 KISDI, 그리고 각 협회는 각각 자신의 분야를 조사하여 세분된 기기분야나 SW분야에 대해 상이한 통계를 발표했었다. 이처럼 혼란스럽던 통계체제를 정비하여 이를 총괄하는 통계작성사업을 우리협회가 주관하게 됨으로써 명실공히 정보통신통계에 관한 국내 최고기관임이 입증되었다.

둘째는 우리협회가 주관하여 정보통신부와 관련한 각 업계단체들을 공동 조사에 참여케하여 정보통신주요품목 동향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월보발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통신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정보통신부 관련 6개 단체가 공동 조사기관으로 참여하였으며, 우리협회가 이 조사체계를 총괄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통계조사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도록 조사하여 관련분야에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사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이다. 셋째는 우리나라를 시도로 구분하여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지역통계를 생성하여 보급하였다는 점이다. 전국 12,000개 사업자의 전수 실사조사와 보고조사를 병행한 자료를 통해 전국을 사업별, 시도별로 구분하여 자본금, 매출액, 생산액, 투자액 등 여러 각도의 사업현황을 정리한 '97년도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를 발간하였으며, 이는 '9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정보통신부의 감수를 받아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로서 공표된 것이다. 또한 우리협회는 연보의 발간과 동시에 매월 산업동향조사, 수시로 발생하는 정부정책을 위한 기획조사, 기술인력의 수급조사 등을 병행하므로써 정보통신산업의 시장, 기술, 인력 및 외국인투자 등 각 분야에 걸친 기초자료와 분석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우리 협회의 조사통계의 작성과 분석능력을 기반으로, '98년에는 정보통신산업체에는 경영전략의 기초자료와 정부 및 연구기관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신뢰성있는 양질의 통계정보를 제공한다는 조사통계의 본래 취지에 어울리는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조사통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태인 조사연구실장〉